

# 광주 주택건설 경기 길고 긴 침체 간판만 내건 건설사 무더기 말소

광주지역 주택건설업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올 들어 일거리가 급감하면서 기술자 고용 규정을 어겨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매년 평균 처분건수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고 있다. 광주시는 3일 "최근 지역 주택건설업체 25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등록 시 고용한 건축기사 등 기술자를 유지하지 못한 7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79곳 중 68곳은 3개월동안 영업을 정지됐으며, 11곳은 영업정지기간에도 기술자를 채용하지 못해 등록이 말소됐다. 최근 2~3년간 지역주택건설경기의 침체로 기술자 보유 규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수는 20~30건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주택건설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가 많은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처럼 적발 건수가

폭증한 것은 처음"이라며 "적발된 업체가 너무 많아 고민했지만 행정성을 감안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말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쳐 기술자 고용규정을 어긴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외환보유액 사상 첫 3000억 달러 돌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화폐정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저축은행 비대위 '전국 조직' 확대

## 예보법 개정·피해 구제책 마련 투쟁

보해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 피해자들이 전국 규모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 보해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서상훈(37) 위원장은 이달 중순에 전남과 대전, 서울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위치한 전국 지역별 예금 피해자 모임을 갖고 전국단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국회 행정기법관에서 열린 부산지역 국회의원과들의 간담회에 부산저축은행

과, 대전저축은행 등 비대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며 "저축은행 문제는 지역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해저축은행과 관련, 5000만원 이상 예금 피해자는 3000여명에 금액은 3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보해저축은행 비대위는 현재 완벽히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임원진을 선임하고 활동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지난 주 보해 측에서 이달 내로 피해금에 대한 보전방안을 비대위와 논의하겠다고 의견을 밝혔

다"며 "논의 시점까지 보해 측 행동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피해에 대한 길거리 홍보 등을 강화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 피해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해저축은행 비대위는 또 부산저축은행 비대위 등과 함께 국회를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 투쟁을 벌이고, 금융당국과 청와대 등 정부를 대상으로 피해구제책 마련 투쟁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된 부정한출 관련자 색출 및 처벌과 부정한출 예금 압류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광주은행 무디스 신용등급 A3 획득

광주은행은 3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A3를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의 외국 신용등급은 작년

에 BBB등급(피치 신용등급)이었으나 이번에 A3 등급을 받아 2단계 상승하게 된 셈이라고 은행 측은 덧붙였다.

광주은행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약 1개월간 무디스로부터 경영현황, 사업전략, 자산의 질, 수익성, 자본관리, 영업실적 등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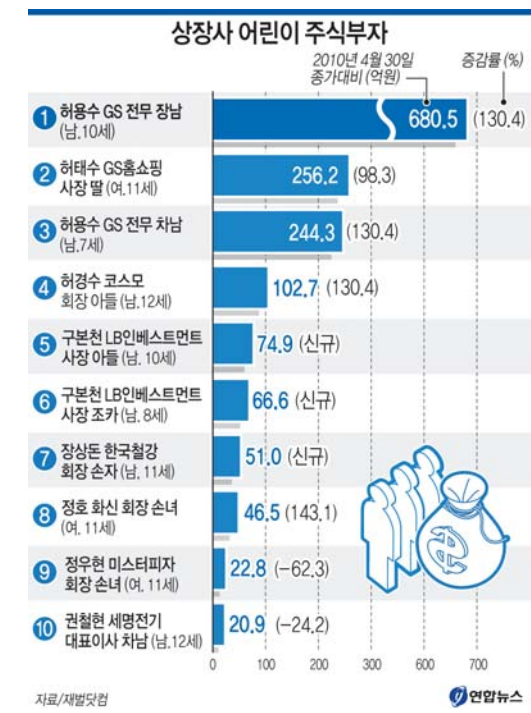
광주은행 종합기획부 문현필 부장은 "평가를 통해 광주·전남의 확고한 프랜차이즈 금융기관으로서 안정성과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10억이상 어린이 주식부자 23명

## GS·LG家 손자녀 대거 상위권

## 허용수 전무 장남 681억 최고

재벌가 아이들도 최근 주가 상승 덕을 토포하며 봤다. 광범한 월급쟁이라면 평생 모아도 만져보지도 못할 액수의 부를 중학교 취학 전에 이미 축적한 어린이들이 올해 많이 늘어났다. 이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일하지 않고도 자연스레 주식부자 대열에 올라갈 수 있었다. 3일 재벌닷컴이 상장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중 만 12세 이하 어린이(1998년 4월 30일 이후 출생자)의 주식지분 가치를 지난 달 29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1억원 이상 보유자가 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9명보다 8명이나 늘어났다. 100억원이 넘는 어린이 주식부자는 지난해보다 1명 늘어난 4명, 이들을 포함한 10억원 이상은 13명에서 23명으로 무려 10명이나 증가했다. 어린이 주식부자가 전통적으로 많은 GS(家)와 범LG家의 손자녀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함됐다. 1위는 허용수 GS 전무의 장남인 A군(681억원)이다. 허전무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4촌이다. A군이 보유 중인 GS 주식 76만341주 가치는 1년새 130.4% 늘어났다. 허태수 GS홀딩스 사장의 딸인 B군(256억원), 허용수 전무의 차남인 C군(244억원), 허경수 코스모 회장의 아들인 D군(103억원) 등 허씨 집안 어린이 4명이 모두 100억



원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1~4위를 휩쓸었다. 범 LG가 출신인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의 아들인 E군과 조카인 F군은 75억원, 74억원을 각각 기록하며 올해 처음 어린이이 역대 주식부자 명단에 등장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셋째 동생인 구자두 LB인베스트먼트 회장의 아들인 구본천 사장은 이상수 한나라당 의원의 사위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 모바일뱅킹 1년새 45배 ↑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뱅킹에 등록된 고객이 1년 새 4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내놓은 '1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422만7천명을 기록했다. 전분기의 1.6배, 전년 같은 기간의 45.5배가 된 셈이다. 해당 등록고객 수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4분기 1만3000명에서 2010년 1분기 9만3000명, 2분기 54만명, 3분기 136만9000명, 4분기 260만9000명으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하는 IC칩 방식과 인터넷뱅킹을 프로그램을 이동통신기기에 내려받아 이용하는 가상머신(VM, Virtual Machine) 방식을 합한 전체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전분기 말보다 12.1%가 증가한 176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닭고기 등 9개 품목 관세 ↓

젓소와 닭고기, 건포도 등 9개 품목에 새롭게 무관세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할당관세를 시행 중인 삼겹살과 밀가루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물량을 늘리거나 관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D),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될 우려가 있는 이들 13개 품목에 대해 신규 또는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은 99개에서 108개로 늘어났다. 신규 품목은 닭고기와 젓소, 가공유크림, 크림치즈, 가우더치즈, 건포도, 미강유, 가공초콜릿, 재생·반합성 필라멘트 등 9개다. 세율을 21%에서 8%로 내리는 건포도 외에는 모두 무관세다. 닭고기(5만t)와 젓소(1만마리), 가우더치즈(1000t), 크림치즈(1200t), 가공유크림(1500t) 등 5개 품목에는 할당물량이 적용된다. 추가 적용 품목은 냉장 삼겹살과 밀가루, 조주정 매니옥 칩 등 모두 4개다. /연합뉴스

유사석유신고센터 1588-5166

# 대한민국 녹색미래를 위한 무한감동 약속!!

청정석유 관리, 녹색성장의 첨병이 되겠습니다! K-Petro

**Q**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엄정한 품질검사  
Quality Inspection

**T** 공인시험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정밀한 시험분석  
Test & Analysis

**R** 석유산업 활성화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Research & Development

**T** 세계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협력사업  
Technology Information & Overseas Cooperation

**D** 불법은 막고 흐름은 원활하도록 엄격한 유통관리  
Distribution & Management

**S** 기준을 바로잡는 석유제품 등 관련분야 국가표준개발  
Standards Development Cooperation

**O** 석유산업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  
Oil Imports Tax Refund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하는  
**청정·한국·세상**

**새롭게 출발한  
한국석유관리원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2009년 5월 1일, '고객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적인 석유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한국석유관리원, 지난 2년 동안 모든 임직원의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이제 또 다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리더로서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더 큰 꿈을 가슴에 품고 더 높게 도약하겠습니다.